

남원시, 드론 활용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올해 요천지구 선정... 내일부터 이틀간 사업 현장 점검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드론 활용 시범사업에 2017년 요천지구(식정동, 이백면 남계리 일원 350필지, 19만3,000㎡)가 선정되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이번 드론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현지조사에 소요되던 인력 및 시간을

줄여 사업 기간 단축과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시는 지난 5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와 합동으로 요천지구에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띄워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해상도 5cm이하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확인 가능한 고정밀 영상을 확보하였다.

또한 그 촬영된 영상으로 22일부터 이틀간 시 점산교육장 및 요천지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와 전국 시범사업 지자체가 참석하여 지적재조사작

업 대체수단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정확도 현장검증 및 영상 프로세싱 등 후처리 방법 교육을 실시한다.

양완철 민원과장은 "최신 측량기술인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지적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유자간 경계조정 협의 시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 지적재조사사업 성공적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 육군 35사단, 바쁜 농가에 '큰 힘'

가뭄극복 동참이어 농촌일손돕기... 지사면 감자농가 찾아 작물 수확 나서

임실군에 있는 제35보병사단 공병대대가 농촌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일손부족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0일 임실군 지사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제35보병사단은 지사면에 있는 농가들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장병 20여명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사면 영천마을 소재 인영선씨 감자 농가를 찾아 감자를 수확해 이모작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서준영 공병대대 대장은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민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군부대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35보병사단 공병대대는 22일과 23일에도 방계마을, 실곡마을에서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농가를 방문해 농촌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육군 35사단 정비부대장병 20여명은 일손 부족으로 수확물을 거둘 수 없다는 오수면 김모씨 소식을 듣고 자원봉사를 실시, 5900㎡의 밭에서 양파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35사단은 또 19일과 20일에도 가뭄으로 모내기 및 논물마름으로 논바닥이 갈라지는 신덕면 율치지구에서 군공무원들과 민간인들과 함께 물대기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35사단은 살수차를 동원해 가

뭍으로 인한 물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을 주었다.

임실군은 한편 최근 가뭄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일손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 임실군 지사면과 군청 지역경계과, 주민 등 30여명은 안하마을 매실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같은 날 강진면과 민원봉사과, 보건의료원 직원 20여명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목마을 이모(55)씨 농가를 찾는 등 분청과 읍면 직원들이 일손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훈훈한 봉사행정을 펼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행복 나누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만났다

남원시, 사회적 경제 일자리 간담회... 전북사회적 경제 포럼 강연도 마련

남원시가 새정부의 사회적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일 시청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행복을 나누는 기업 대표와 사무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업들의 소개와 상호 이해와 정보를 공유하고 남원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격려와 연대를 강화했다.

또한, 전북사회적경제포럼과 함께 유

익한 강의시간을 마련해서, 평소 궁금하거나 유의해야 할 내용뿐 아니라 자립능력을 키우고 성공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모든 기업들이 더 튼튼하게 성장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씨앗을 싹틔우는 데 큰 힘이 될 수있음을 강조하면서 관련기업은 물론 지역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대를 통해 더욱더 건실한 사회경제적 모델로 성장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남원에는 5개 사회적기업, 7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87명의 일자리 창출하고 있으며 6개 마을기업에서 1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커피지도사 자격증으로 창업할거예요”

순창군, 커피지도사과정 교육

순창군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커피지도사 자격증반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커피지도사자격증반 교육은 군이 지역생활특화자원을 활용한 창업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군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홈페이지 공고를 실시하고 교육대상자를 선정했다. 총 25명 정원에 40여명이 몰려 인기를 실감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완공한 건강장수연구소 식문화 실습관에서 진행되며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주2회 총 15강이 진행될 계획이다.

최근 3회 강의동안 원산지별 특질, 분류 원두구입 보관요령, 도구 등을 이용한 커피 추출법 등의 교육

을 진행했다. 군은 앞으로 에스프레소 등 각 커피의 특징과 향분류, 추출기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질적으로 창업과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시간에는 교육을 마친 커피지도사 자격증반 교육생들이 인증 시험에 도전한다.

특히 순창군은 최근 미생물로 커피를 발효시킨 발효커피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해 교육 커리큘럼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양모(27, 여)씨는 “최근 국내 커피전문점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면서 “지식이 늘고 있는 만큼 소비도 늘고 있어 아직은 가능성이 큰 만큼 열심히 교육을 받아 꼭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선별 검사 실시

순창군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해 노인 치매를 낮추기에 본격 나섰다.

이번 치매예방 검진은 전문검진반이 각 경로당을 찾아가 진행하며 계획에 따라 연중 실시된다. 군은 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거나 치매예방 검진을 따로 원하는 노인 분들을 위해 의료원을 방문하면 언제나 치매예방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검진은 우선 노인들이 치매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도록 ‘치매바로알기’와 치매예방법 교육’을 실시한다. 또 치매예방체조도 실시해 예방효과는 물론 어르신들에게 즐거움도 선사한다.

개인별 무료 치매 검진도 실시해 치매 정도를 체크한다.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자로 판단되면 협약병

의원에서 2차 정밀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치매 확진자의 경우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단 3인 가구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등)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치매치료비를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은 특히, 독거노인과 75세 이상 노인 등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따로 분류해 치매교육, 예방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별도 관리하고 있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최근 고령우선 노인들이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가족의 부담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사업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가족의 부담부담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시내버스 2천원 요금제 시행

남원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제를 개선하여 2천원 상한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원시는 남원여객(주) 시내버스 42대가 163개 노선을 운행한다. 10km 이내에는 어른 1350원의 요금을 내며 km당 116.14원의 초과 운임을 더 부과하는 거리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거리 시내버스 이용자들은 요금 부담이 크다.

시내버스 2,000원 상한 요금제가 시행되면 2,000원 미만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며, 운봉·대강 등 버스 요금이 2천원 이상 지역은 일반인은 2,000원, 중고생은 1,600원, 초등생은 1000원만 내면 거리와 관계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50원이 추가 할인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의회 가뭄피해 현장방문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해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21일 오전 가뭄피해현장을 방문했다.

군의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파악하고,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 바로 가뭄피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임실=진홍영 기자

“사우디 여행시 메르스 주의”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市 소재 3개 병원에서 메르스 집단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사우디 등 중동 여행객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세계적으로 메르스는 2017년 1월 이후 총 145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중증에서 발생하였고, 38명이 사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총 138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매일 20여명 규모였으나, 6월 들어 43명으로 증가하였고 리야드市的 3개 병원에서 집단 발생하였으며 1차 감염자 3명, 2차 감염자 37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세계보건기구(WHO), 6월 12일)

남원시보건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메르스 국내 유입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 메르스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면서 의심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진료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